

■ 영상택배 시즌2 - 진도 북춤



이번에 전해드리는 영상택배는 남원시 사매면에 위치한 혼불문학관에서 촬영한 진도북춤입니다. 국립민속국악원에서 제공한 영상입니다. 진도북춤은 진도의 들노래나 두레곳의 풍물가락에서 북만을 따로 독립시켜 춤으로 만든 작품으로 북을 허리에 고정시키고 양손에 북채를 들고 추는 춤입니다. 굿거리, 자진모리, 동살풀이로 넘어가는 화려한 북장단이 특징입니다. 남성적이면서도 직선미와 곡선미의 조화가 뚜렷하고 장단과 가락이 춤과 어우러지는 예술성이 돋보이는 춤입니다.

■ 연구원 회원 소식

홍응호 회원 자녀 혼인(1월 30일)

결	일
혼	규
합	♥
니	승
다	인



우리 연구원 홍응호 회원(동국대 교수)의 장녀 홍승인씨가 귀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홍응호 회원이 청년인줄 알고 계시던 분들이 많이 놀라실 듯 합니다. 오는 1월 30일(토) 11시에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스타시티아트웨딩홀 5층에서 혼인식이 열립니다. 러시아 역사 탐방 때마다 연구원의 길잡이가 되어주셨던 홍응호 회원님께 커다란 축하 부탁드립니다.

마음 전하실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은행: 531-211970-02-101/ 홍응호)

동화의 세계 순례(5)

하이디 마을의 현장

김천식(문학박사 / 한국고전문학연구원 전임 연구원)



하이디를 찾아가는 길

지금까지 몇 차례 하이디의 이야기를 소개하였다. 금 번 호는 하이디 마을의 현장으로 가는 이야기다. 하이디 마을의 시작은 마이엔펠트 기차역에서 부터이다. 기차역에서 산이 보이는 방향으로 몇 발짝 가면 하이디 거점 마을인 되르플리 동네가 나온다.

하이디 마을 초엽인 이곳에 숙소를 정하고 하이디를 찾아 나서면 된다.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천천히 걸어서 다녀도 이틀이면 충분하다. 숙소에서 나와 매봉산을 바라보며 마을을 벗어나 10분 정도 동산을 오르면 하이디 박물관이 나온다.



하이디 박물관



하이디 박물관을 찾은 어린이 관객

하이디 박물관은 언뜻 보면 허름한 2층짜리 창고로 보인다. 그러나 주위 알프스 경치와 어우러지는 소박함을 가지고 있다. 때마침 인형 같은 어린이가 아빠 손을 붙잡고 박물관 마당을 거닐고 있었는데, 주위에는 나무로 만든 소와 구루마 기리고 양이 뛰어 다니고 있는 광경들이 어린이가 좋아할 만 하였다.

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직원이 문을 닫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서 직원에게 입장 시간이 지난줄 알지만, 내일 다시 올 수 없으니 좀 구경할 수 없겠느냐고 부탁을 했더니 닫으려던 문을 다시 열면서 들어가라고 하면서, 입장료가 있지만 관람 시간이 많지 않으니 그냥 관람하라고 한다. 우리 상식으로는 문 닫을 시간이므로 입장 불허 내지는 관람시간이 촉박하더라도 입장료를 받거나 둘 중 하나인데, 유럽인의 배려에서 여유가 느껴진다.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니 여느 박물관처럼 현대식 인테리어와는 무관하고, 하이디의 오두막처럼 느껴지게 꾸며 놓았다. 다르게 비교해보자면, 고급 레스토랑과 시골밥집인데, 시골밥집이 맛과 분위기가 정겹게 느껴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전시품들과 대화도 할 수 있고, 피터가 성질나서 절벽 아래로 밀어버린 클라라의 휠체어도 보인다. 동화 속에 등장하는 분위기와 소품들이, 동화를 실제 현장으로 느끼게 만들어 준다.



박물관을 나와서 보니 할아버지와 하이드가 살았던 고원으로 올라가는 좁은 길이 보이길래 그 길을 따라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였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지만, 가파르지 않았다. 또한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길이지만, 곳곳에 하이드 관련 나무 조각과 안내 포스탈들이 적당한 간격으로 게시되어 있어서 가는 길이 지루하지 않았다.



드디어 다 왔다고 생각될 무렵 알 수 없는 낭랑한 소리가 울렸다. 그것은 단음이 아니고 무언가 여러 음이 울려 퍼지는 그런 소리인데, 그냥 소리라고도 할 수 없고 천상의 음악 처럼 신비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그 소리가 궁금해서 걸음을 재촉하여 산허리를 돌아서니 그 소리의 정체를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Cow Bell 소리였다. 하이디 오두막 아래 넓은 풀밭에서 수 십 마리의 소가 풀을 뜯고 있었는데, 소의 목에 달린 종이 울리는 소리였다. 소의 크기에 따라 종의 크기가 다른 까닭에 수 십 개의 Cow Bell에서 나는 소리가 그야말로 천상에서 울리는 화음이었다.

드디어 동화의 중심 장소 고원의 '하이디 오두막'에 도착하였다. 하이디는 없었지만 그곳엔 피터와 할아버지가 있었고 먼 곳에서 찾아온 나를 맞아주었다. 동화의 세계는 역사적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으로 이끈다. 동화는 또한 우리를 동심의 세계로 인도해 준다. 동심의 세계로 들어가면 정신적 육체적 힐링이 되는 일이 일어난다.

하이디의 천진함이 할아버지의 강직한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모에게 끌려간 곳에서는 부자지만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하이디가 알프스로 되돌아오고 하이디를 보고 싶어 알프스 고원으로 온 클라라가 할아버지와 하이디의 보살핌으로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게 된다. 하이디는 눈이 안 보이는 산간마을 할머니를 위해 매일 가다시피하고 책을 읽어주는데,

-“찬란한 금빛 해는 기쁨과 환희에 넘쳐 답답한 우리 삶을 산뜻하고 부드럽게 비추네,
나는 힘없이 누워 있었네. 하지만 이제 일어나 기쁨과 활기에 넘쳐 하늘을 우러러 보노라.
하나님의 축복은 손상을 잃지 않느니. 마음속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지키시네.
고난과 불행이 끝나고 성난 파도와 세찬 바람이 지나가고
드디어 해님의 찬란한 얼굴 나오셨네. 앞의 책 p.265-167”-

구절구절이 어른들에게 주는 작가의 신앙 간증 같다. <하이디 동화 끝>